

## 원산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구상(안)



## 원산도 중심 5개 섬 국제 해양관광벨트 거점 탈바꿈

도, 해수부·보령시·대명소노그룹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리조트, 해양관광케이블카 등 조성

2030년까지 민자 등 1조 1200억 투입  
“세계가 찾는 해양레저관광지로”

충남도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원산도 등 5개 섬을 묶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1조 1254억 원을 투입, 섬 특색에 맞춰 리조트, 해양레포츠센터 등을 짓고 3.9km 길이의 해양 케이블카 등을 설치한다.

충남도는 9월 14일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명소노그룹과 원산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발 개념은 ‘원산도 오섬 아일랜드(Awesome Islands)’로, 경탄할 만한 매력을 가진 원산도와 주변 4개 섬을 지칭하며, 한글과 영어를 활용해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대상은 원산도와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이다.

원산도는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의 가치가 결합된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오섬 아일랜드의 중심 섬으로 조성한다. 삽시도는 아트 아일랜드,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 효자도는 가족 아일랜드로 만든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원산도·삽시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9개다.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전동서핑보드, 제트스키 등 해양레포츠 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로 꾸미고, 복합 마리나항은 크루즈선과 연계한 요트와 수상비행기 등의 계류·접안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한다.

헬스케어 복합단지는 원산도해수욕장과 인근 숲을 활용해 해양·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치유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은 갯벌자원 복원과 사구 보전, 염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는 섬 내 숲과 해변을 활용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

술인 섬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양 문화자원 및 미술품을 활용한 섬 국제 비엔날레를 2026년 개최한다.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은 원산도 등 5개 섬을 연결하는 항로를 구축하고 섬별 요트·해상 택시 정박지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이 추진 중인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는 숙박시설(객실 2000여실), 오락·휴양시설(승마장, 식물원, 캠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이 목표다.

또한 원산도와 삽시도 3.9km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를 설치, 2026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기업은 ▲콘텐츠 개발 ▲시설 도입 ▲민간투자 추진 ▲지역 민원 해결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도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이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해양정책과 041-635-4767

### 원산도 오섬 아일랜드(Awesome Islands)

- ▲사업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 ▲총사업비 - 1조 1254억 원
- ▲사업기간 - 2022~2030년
- ▲사업전략 - 3대 전략(해양레저 거점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 기반시설 구축), 9대 추진과제
- ▲목표 - 지속가능한 사계절 레저관광 및 다양한 콘텐츠와 고품격 서비스 실현
- ▲사업내용 - 해양 융복합 거점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집약 공간 창출

###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정신문’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 탄소중립 정책 전 세계에 알렸다

도, 2022언더2연합 총회서 발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언더2연합과 협력지원 방안 모색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전세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 발굴에 나선 충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다.

도는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부터 전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 탈석탄금고 도입,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공약 발표 등 선도정책을 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으로서 9월 19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즈 센터 1층에서 열린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한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태 지역의 비전은 47개 회원 단체 모두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선도정책을 글로벌 리더들에게 소개하고, 탄

소중립에 더욱 앞장서 나갈 뜻을 밝혔다.

도는 정부가 2019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본격관리하기 전인 2017년부터 기후위기 대응관심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초 기후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정부 역제안과 법제화 등 전국 선도 정책발굴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탄소중립 가속화 : 대전환과 도약’을 주제로 ▲한국-중국-일본 지방정부 연합 에너지 전환 ▲녹색정책전환 논의 등 언더2연합과 탈석탄 동맹이 협업체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기후주간과 연계해 개최하는 2022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지구 온도상승 1.5℃ 제한을 위한 도의 정책과 경험을 전세계에 알렸다.

여기서 도는 탄소중립 대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9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타임즈 센터에서 열린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실증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팀 애쉬 비 사무국장은 “충남과 언더2연합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 나아가자”며 “지사님이 제안하신 언더2연합 지원에 관한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요

청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구 온도상승 억제에 기여하겠다”며 “언더2연합과 공동으로 연합해 기후전락을 한 단계 높이고 행동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진전된 협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1

##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

오는 9월 26일 0시부터 발표

지역 부동산시장 ‘숨통’ 기대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중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 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주택 수 제한,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천안·공주·논산 지역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거정책을 시행, 안정적인 주택 시장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축도시과 041-635-4651

##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소통의 장’ 마련

전문가 포럼서 운영방안 논의

충남도는 9월 27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 예술의 전당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재 추진 중인 충남 예술의 전당의 성공적인 건립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 지역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다.

포럼은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도 관계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기관,

지역 예술단체, 도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충남 예술의 전당은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서관, 충남미술관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조성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연을 제 공해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공연 예술의 무대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 예술의 전당은 기본계획 수립 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심사 등 후속 행정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041-635-3825



충남예술의전당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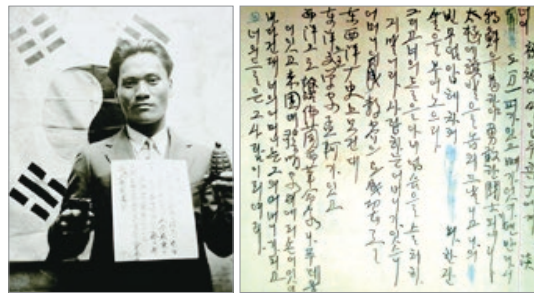
##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1)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다

윤봉길은 1932년 4월 26일 적의 장교를 도륙(屠戮)하기로 맹세한다는 선언문을 혈서로 쓰고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다음 날부터 일제의 천장절 행사장인 홍구 공원을 답사하였다. 사열대 만드는 것을 보고 근처까지 가서 거사를 감행할 적당한 위치를 골랐다. 그리고 공동 조계(租界) 안의 일본인 상점에 가서 일본 보자기 1장을 구입하고 숙소를 동방공우(東方公寓) 30호로 옮겼다. 숙박부에 이름을 적고, 국적은 한국, 나이는 25세라고 적었다. 이날 저녁 김구가 호텔을 방문하였다. 윤봉길은 공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김구와 함께 안공근의 집으로 가서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



선서식 후의 윤봉길의사 두 아들에게 남긴 친필 유서

었다. 단신 사진과 태극기를 배경으로 가슴에 선언문을 펴 붙이고 왼손에 폭탄, 오른손에 권총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김구와 함께 서 있는 사진 등 모두 3장을 찍었다.

거사 전날인 4월 28일 정오에 김구와 중국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술과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일본인 상점에 가서 시라카와 대장과 우에다 중장의 사진과 일장기도 구입해서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상념에 잠혀있던

중에 김구가 다시 찾아왔다. 후일을 위하여 이력서와 유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윤봉길은 ‘이력서’라고 쓰고 본적과 본관을 쓰고 부모 이름을 썼다. 이어서 ‘7세에 사숙에 들어가 8,9명 동기 중에서 총명하였음으로 선생과 이웃 동리의 부형들로부터 재동이라고 불렸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약력을 쓰기 시작하였다. 15세 때 지은 ‘학행(學行)’이란 시도 적었다. ‘시랑동가’도 적었다. 그리고 수화(水禍)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대로 태연히 앉아볼 수 없어 귀에 쟁쟁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향해 압록강을 건너 청도를 거쳐 상해에 왔음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족(遺族)’이라 쓰고 부모님과 처,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과 생년 등을 적었다. ‘가족’이라고 쓰지 않고 ‘유족’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거사 후에 자살을 결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썼다. 여기에서 그는 두 아

들에게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고 하였다. 그리고 광복의 날에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으라”고 유언하였다. 이어서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면서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이를 동서양 역사에서 보건대 맹자와 나폴레옹,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당부하였다. 죽음을 앞둔 아비가 어린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 올 가을 평화의 하모니 울린다...계룡군문화엑스포 임박

## 군문화엑스포 전시관 살펴보기

10월 7~23일 계룡서 개최

세계 유일 종합군문화축제

세계평화관 등 7개 전시관

군장비 탑승, 병영훈련체험

육·해·공군 등 軍 전 분야 조명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군문화엑스포)가 오는 10월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에서 열린다. 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 세계 전쟁 역사와 군의 의식주, 무기, 첨단기술 등 군 전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행사다.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등 7개 전시관이 운영, 전 세계 전쟁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 우리나라 국방 현주소 등을 살펴본다.

### 세계평화관

세계평화관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순간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25분 상당으로, 일상의 평화, 전쟁의 고통, 끝나지 않는 슬픔 등 5개 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을 집중 조명하며 평화의 소중함과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한다.

### 한반도희망관

한반도희망관은 대한민국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소개한다. 'Peacemaker를 꿈꾸는 평화와 희망의 한반도' 주제로 6.25전쟁, UN군 참전, 통일의 염원 등 4개 존으로 구성, 관람시간은 약 30분이다. 전쟁의 주요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표현하고, 통일 후 다가올 미래를 소개한다.

### 대한민국국방관

대한민국 국방관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존 등이 마련돼 평화 실현을 위해 힘쓰는 우리나라 국방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국방존, 육군존, 해군 해병대존, 공군존, VR 병영체험존 등 5개 존으로 진행된다. 이중 VR 병영체험존에서 K-2 흑표 전차, 잠수함, 군

사용 드론 등 VR 체험할 수 있다.

### 세계군문화생활관

세계군문화생활관에서는 대한민국 국군과 세계 군의 의식주 군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발전한 전투식량 과정이나 전투복 변천사, 야전 생활 체험 등 군의 의식주 문화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 국방체험관

국방체험관에서는 국군의 다양한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드론봇 전투체계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선도, 우주력 발전 등 군사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알린다. 아울러 초연결·초지능화 스마트 육군, 군복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살펴보면 좋다.

### 4차산업융합관

4차산업융합관에서는 국방 관련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접할 수 있다. 국방산업 대기업 및 4차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기업 제품을 전시하며, 7개 존이 운영된다.

### 지역산업관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지역산업관에서는 도내 관광과 특산물, 지역 기업 우수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벤트 체험존도 운영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 군 최첨단 전투장비 전시로 볼거리 '풍성'

K-9A1 명품 자주포부터

최첨단 무기·장비 75종 전시

군문화엑스포조직위는 오는 10월 7일에 개최되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선보일 최첨단 무기와 전투장비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군문화엑스포 기간 동안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야외 무기 전시존을 마련하여 육·해·공군 및 미군 등이 운용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 및 장비 75종 81기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탑승체험까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시존에는 '자주포의 끝판왕 K-9A1'이 선보인다. K-9의 개량형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자

주포다. 다양한 개량이 이뤄진 K-9A1 자주포는 미래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성이 증명되어 다양한 국가에도 수출이 됐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첨단 무기들도 출동하여 JTLV 합동 경전술차량, M270 다련장, M1135 화생방정찰차량, AN/TWQ-1 AVENGER 이동식단거리방공체계 등을 주한미군의 설명과 함께 직접 만나 볼 수 있어 군사 마니아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주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K-31 천마, 군용 수송헬기 CH-47 시누크, 수중 무인탐사기(ROV), 각종 미사일 모형 등 관람객들이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4차산업 기술과 첨단과학이 결합된 전투장비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기



장비 기동시범(K2전차)

회가 제공된다.

더욱이 행사장 내 기동시범장에서는 무인로봇·드론 등 육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한 전투상황 묘사와 첨단 전력인 전자 등 전투기동시범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생동

감 넘치는 장면들이 제공되는 한편, 국군의 위용을 널리 떨치는 장이 마련된다.

유병훈 사무총장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에 걸맞게 대한민국 국군의 웅장한 전투장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서 "평화 수호자로서의 군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 18개사 4282억 원 투자유치...1139명 고용효과

도-18개 기업, 투자 협약 체결  
13개사 공장 신증설, 4개사 이전  
중국서 서천으로 복귀기업 1개사

충남도가 국내 우량 중소기업 18개사로부터 4282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도는 9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천안 등 6개 시·군, 제이에이치씨가 등 18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30만 885㎡의 부지에 총 4282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 중 13개사는 공장을 신증설하고, 4개사는 이전, 1개사는 국내복귀 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139명이다.

천안테크노파크산단에는 2차전지 제

조설비 업체인 에이프로가 1000억 원을 투자해 3만 3058㎡의 부지에, 산업용 세정제 업체인 제이에이치씨가 220억 원을 투자해 8205㎡의 부지에 각각 공장을 신설한다.

이 산단에는 또 인쇄잉크 업체인 동양잉크가 175억 원을, 전자기속기 업체인 이비테크가 17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기로 했다.

보령 웅천일반산단에는 마루·가구용 PVC필름 업체인 노바스마트코리아가 148억 원을 투자해 대전 사업장을 이전하고, 강구조물 업체인 천지플랜트 산업은 85억 원을 투자해 전북 김제 공장을 이전한다.

아산에는 물류자동화 장비 업체인 한텍이 200억 원을 투자해 음봉일반산단 8461㎡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탕정테크노일반산단 6388㎡의 부지에는 친환경 탈질 환원제 업체인 에스엠씨케미칼이 공장을 신설한다.



충남도와 6개 시군, 18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당진 석문국가산단에는 자동차 범퍼 신규업체인 동호오토모티브가 700억 원을, 모듈러 건축 업체인 유창이앤씨는 500억 원을 들여 각각 공장을 짓는다.

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에는 액정 디스플레이 업체인 토비스가 295억 원을 투자해 중국 대련 공장을 국내로 복귀

시키기로 했다. 또 철골 구조물 전문 업체인 성지테크가 122억 원을 투자해 전북 군산공장을 이전하고, 화장품 액상 원료 업체인 에스앤피글로벌이 6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에는 5685억 원의 생산 효과

와 177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기업들의 부지 조성 및 장비 구입 등 건설로 인한 효과는 생산유발 57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2130억 원 등으로 예상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8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세계 강소기업으로 키운다

충남 스타기업 15개사 선정  
전문가 일대일 상담 등 지원

충남도가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우수 중소기업 15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도는 9월 14일 홍성군 소재 한양로보틱스에서 ‘2022년도 제5기 충남 스타기업’ 현판 제막 행사를 열고 스타기업 지정서를 15개사에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정서 수여, 회사 소개, 시설 견학,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 스타기업은 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15개사는 평균 매출액 157억 원, 평균 근로자 수 38명, 평균 수출액 37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CAGR) 69% 등 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 ▲국보옵틱스 ▲농업회사법인 백제 ▲메이드테크 ▲아라 ▲아스토 ▲아이엔에스 ▲에스아이티 ▲

에스엠씨케미칼 ▲엘림 ▲엠에스머트리얼즈 ▲웰탐테크노스 ▲코나솔 ▲티에스피지 ▲한국진공야금 ▲한양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충남 스타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연구개발(R&D)과제를 지원받는다.

또 전담 전문가와 일대일(1:1) 기술·경영 상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성장 계획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연구개발 사업인 차세대 스타기업 상용화 연구개발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받는다.

/산업육성과 041-635-3927

## 케이팝으로 청소년 국제화 역량 높인다

도-시즈오카현 청소년 온라인 교류

충남도는 9월 19일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케이팝 토크 카페(K-POP Talk Cafe)’를 개최했다.

도내 소재한 한국케이팝(K-POP)고등학교 재학생과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즈오카현 내 고교생 등 약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도·한국케이팝고 홍보 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케이팝 가수와 노래, 양 지역의 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1



‘케이팝 토크 카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있다.

## 그 허부랭일 워따 쓸라군다

이명재의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제대로 여물지 않아 거들 것 없는 콩

“그 허부랭이 콩은 뭐다라 거둔다? 사람만 입인감? 쇠물죽이래두 쓸라구 그려.”

“그런 허부랭일 데려다가 워따 쓸라군다?”

‘허부랭이’는 ‘허불랭이’라고도 한다. 이는 곡식이 여물지 않은 쪽정이다. 옛날 충남지역에서는 물건이나 곡식 줄기가 정돈되지 않고 제멋대로 부풀어 흐트러진 상태를 ‘허부랭하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허부랭이’는 여물지 않아 커다랗게 부풀

어 오르지만 한 곡식 줄기다. 타작을 끝내 이삭이나 낱알이 달려 있지 않은 빈 줄기다.

위 예문의 ‘허부랭이 콩’은 제대로 여물지 않아 거들 것 없는 콩이다. 요즘이야 이런 빈 콩대를 거둬들일 일이 없다. 그러나 예전에는 소가 있었다. 소는 농사의 핵심이요, 털 여문 콩이지만 콩깍지와 잎이 달려있는 콩대는 쇠죽의 긴요한 재료였다. 그래서 충남의 농부들은 콩바심을 하고 남은 콩깍지는 ‘깍지통가리’를 만들어 따로 보관했다. 이렇게 보관된 콩깍지는 겨우내 쇠죽술에 들어가 구수한 냄새를 뿜었다.

‘허부랭이’는 ‘보리꺼락이나 벳짚, 작물의 빈 줄기’인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심 끝낸 보리 줄기일

것이다. 여름철 보리를 바심하고 나면 낱알을 떨근 보릿대가 마당 가득 쌓였다. 허부랭이 보릿대는 부피만 커서 관리하기가 어려웠고, 헛간에 쌓아둔 보릿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 일쑤였다.

두 번째 예문에 나오는 ‘허부랭이’는 속 빈 이를 이르는 말이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은 ‘허부랭이’처럼 실속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충남 사람은 직접 말하기보다는 우회적 비유를 즐긴다. 그래서 위 예문은 ‘일 못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묻는 것이기보다는 ‘일 못하는 사람은 데려가 쓰면 안 좋다. 그러지 말아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 근골격계질환 예방 체조

#### 어깨통증 예방

1 손을 내려 등에서 깍지를 낀다.  
2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힘을 주어 어깨를 뒤로 움직인 뒤 5초간 유지하고 힘을 뺐다.

1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린 후 그림과 같이 한쪽 팔을 떨어뜨리고 다른 쪽 팔로 잡습니다. 떨어뜨린 팔을 아래로 당긴다는 기분으로 이완시킵니다.

#### 무릎·다리통증 예방

1 팔짱을 낀 자세에서 팔을 들어 좌우로 돌려 줍니다.

1 깍지 낀 자세에서 팔을 위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 허리통증 예방

1 무릎을 굽히고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무릎을 대고 앉은쪽 고관절의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합니다.

1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줌으로써 고관절을 회전시키는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합니다.

1 허리를 좌우로 돌려 허리근육을 스트레칭 합니다.

1 발을 바닥에 편평하게 대고 무릎을 구부린 채 허리를 대고 누워 허리의 잘못된 부위로 바닥을 누릅니다.



# 도 남부출장소 금산군 설치 확정

위치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내년 1월 정식 개청 목표

지역 균형발전 촉진 기대

충남도는 9월 15일 ‘남부출장소 위치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도 남부출장소 설치 위치를 금산군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출장소는 2012년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출장소 설치 위치를 논산·계룡·금산 등 남부권 3개 시·군 대상 공

모제안 평가를 통해 결정기로 하고, 세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지표를 선정한 뒤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3개 시·군과 도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이날 개최한 평가위원회는 3개 시·군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가진 후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금산군이 입지 여건(30%)과 효과성(70%) 합산 점수를 가장 높게 받으며 출장소 설치 위치로 확정됐다.

평가위원회는 금산군이 3개 시·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출장소 설치 위치를 진산애행복누리센터로 제시한 점을 주목했다.

또 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인

삼 등 특산물 이용 군납 식품 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을 담은 남부권 균형발전 협력체계 추진계획 등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위치 확정에 따라 도는 10월 중 금산군 진산면에 남부민원지원센터를 우선 마련하고, 내년 1월 정식 개청과 함께 남부출장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신설 남부출장소에는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와 등 3개과에 12명이 근무하며, 논산·계룡·금산 등 남부지역의 국방과 인삼 등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9

## ‘건강’ 앱 가입자 35만 명 돌파

참여자 걸음 수 지구 3667바퀴

충남도 대표 건강 앱 ‘건강’가 올해 목표 가입자 수 35만 명을 조기 돌파했다.

도에 따르면 건강 앱 가입자 수는 9월 12일 기준 35만 376명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21만 명을 넘긴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달성한 성과로, 가입자 수는 지난 연말 21만 3304명 대비 13만 7072명(64%)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7만 1251명 ▲20대 2만 1646명 ▲30대 4만 4972명 ▲40대 7만 6059명 ▲50대 6만 2098명 ▲60대 4만 8390명 ▲70대 2만 2323명 ▲80대 이상 3637명이 가입했다.

최고령 가입자는 태안에 거주하는 98세 노인이며, 최연소는 보령에 거주하는 6세 어린이이다.

가장 많이 걷은 사람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40대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933만 걸음을 기록해 일일 평균 걸음 수가 3만 9856걸음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앱 참여자의 총 걸음 수는 지구 3667바퀴(1억 4666만 6305km)를 돈 것에 해당하는 2095억 2329만 걸음에 달한다.

이를 탄소중립 효과로 환산해보면 2053만 3283kg의 탄소를 줄인 것으로, 공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와 도체육회가 도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자체 개발한 건강 앱은 도민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등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걷기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천할 수 있다.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 완화 ▲심장병 예방 ▲다이어트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 개선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골다공증 예방 등 7가지 건강효과를 가져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체육진흥과 041-635-3857

### 도정만화

신 명 환



### 단신기사

#### 아동센터 지원 삶의 질 높인다 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

충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권 등 권리 실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충남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도내 지역아동센터 20곳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친화적인 공간 개선과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주제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7

#### 건강한 간판문화 만들어요

####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 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합동단속 정비반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심지 가로변, 전통시장 및 인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정비 활동을 벌인다.

계도·설득 위주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가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즉시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축도시과 041-635-2823

####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민원인 신뢰도·만족도 ↑

충남도는 9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반기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전화응대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에 이어 악성·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제도 소개 및 대응기법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도 조사와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87

#### 어촌리더 수산업발전 한목소리

#### 하반기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9월 16일 기술보급과 대회의실에서 보령, 홍성, 서천 지역 어촌계장 및 수산업 경영인연합회장 등 어촌리더 70명을 대상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어촌활성화를 위한 어촌지도자의 역할’, ‘지역갈등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내실 있게 진행했다.

이날 어촌리더들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도내 수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향으로 거듭납니다.

충청남도

2023.1.1 시행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웃특별한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담례품

담례품 생산·제조  
주민복지 사업

주인 복지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 육사 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한다

10월 5일 출범식 결의문 낭독  
시민단체, 도민 등 500여 명

충남도민의 염원인 육군사관학교 유치 활동에 나선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0월 5일 전국에 출범 소식을 알린다.  
도에 따르면 9월 6일 첫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추진위는 최근 2차 회의에서 출범식 세부계획 확정 및 추진위 구성을 마쳤다.  
출범행사는 식전공연(큰북 공연)을 시작으로 육사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

의 목소리를 담은 퍼포먼스와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이어진다.  
경과보고에서는 육사 유치 배경과 그동안 중앙부처 및 국회대응, 토론회, 유치 활동 등 실적을 알림과 동시에 유치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학계, 도민 등 500여 명 규모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회 등에 육사 이전을 촉구하고, 공동성명서 건의 등 육사 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여론 결집에 나선다.  
조직체계는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본위원(실행위원회), 고문단으로 구성했다.  
상임위원장 1명은 민간대표를 선임하고, 공동위원장 11명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맡기로 했다.  
본위원은 위원장과 실행위원을 포함해 총 450명이며,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126명, 지방분권충남연대 31명, 충청향우회 및 도민회 18명 등 민간 175명과 정계 225명(도의원 48, 시군의원 177명), 충남연구원 등 학계 30명이다.  
고문단은 국회의원, 시장군수, 대학총장 등 50명으로 구성했다.  
/균형발전과 041-635-3661



## 충남 환경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은?

생육·식미·기호도 현장평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9월 21일 기술원 시험포에서 아열대 작물 현장 평가회를 실시했다. <사진>  
기후변화와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도내 재배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품종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날 현장 평가회에는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결혼이주농업인, 아열대 작물 재배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가

했다.  
평가회에서는 그린빈 2종과 피리꽃 잎, 잎토란 등 아열대 작물 4종에 대한 재배 매뉴얼을 전시하고, 소득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 전시포 내 아열대 작물 생육과 식미, 기호도 평가도 진행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향후 소득화 가능성이 높은 작물을 선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77

## 부여·청양·서천 농촌공간 정비

공모 선정 총 479억 원 투입

충남도는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부여·청양·서천군이 선정돼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1차 공모에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와 청양군 읍내리 일원, 2차 공

모에서 서천군 도둔리 흥원마을과 화성리 대마굴마을 총 4개 지구 공모를 추진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와 부여군은 생활·생산·자연환경의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귀촌마을로 특화하는 등 ‘젊은 노인들의 쾌적한 마을’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청양군은 2026년까지 85억 원을 들

여 장기 방치시설과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빈집 등 철거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와 애견놀이터, 지천문화공간 및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서천군 대마굴마을은 축사 철거 등 농촌공간 재정비에 90억 원을 투입하고, 흥원마을은 2026년까지 송전탑 철거 및 마을정비에 1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활력과 041-635-4076

##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면?

출입통제 등 가상방역훈련

충남도는 9월 16일 서천군 등과 합동으로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대운동장에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대비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훈련은 금강호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인근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금강호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가축방역관 현장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농장 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초동방역팀 투입 ▲농장 입구 통제조소 설치 ▲심각 단계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농가 살처분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이동제한 해제 및 재입식 상황에 대한 훈련도 진행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 가루베, 백제 기와 4점 반환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 가루베지온과  
공주 송산리 고분군



1933년 고고학잡지에 게재된 송산리고분군

가루베지온은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공주에서 일본인 교사로 활동했는데, 한편으로는 도굴꾼이라는 평가도 듣고 있다. 교사와 도굴꾼은 얼핏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어떻게 도굴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  
1897년 야마가타현(山形縣)에서 출생한 그는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이후, 낙랑 및 고구려유적을 조사하기 위해 1925년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당시 평양의 낙랑유적은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고 있었던 만큼 누구나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기에, 백제유적을 조사해보고자 1927년 공주로 이동하였다.  
그는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재임하면서 송산리 고분군을 강제로 발굴하였다. 조사지역은 공주 웅진동, 교통, 금학동, 주미산, 월성산 시내를 포괄할 정도의 광대한 범위였으며, 직접 “1927~1932년 사이 내가 실견한 백제 고분이 100기에 이르며 송산리 고분을 비롯한 100여기는 실측 조사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송산리 고분에서는 그릇받침, 허리띠장식품, 금동장식품, 은제꽃모양장식품 등 많은 유

물들이 출토되었으나, 범위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역시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도굴 유물에 자신의 유물임을 증명하는 ‘가루베 소장품(輕部所藏品)’ 딱지가 붙여져 있었고, 그 안에는 유물의 번호, 품명, 발굴지, 시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산리 고분군에서 가져간 유물의 대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소장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세발달린 잔(三足土器)’, ‘목 짧은 항아리(短頸小壺)’, 금제귀고리 등의 유물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와세다대학의 아이즈아이치 기념박물관 등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6년 그의 가족들은 가루베 소장품을 국립공주박물관에 반환했는데, 그가 100기에 이르는 고분조사를 자랑한 것과는 다르게, 겨우 백제 기와 4점만을 반환했다. 때문에 일부에서 그를 백제고분 조사·연구의 초석을 다진 1세대 연구자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불법적으로 자행한 발굴과 문화재 반출 행위는 그를 도굴꾼이나 약탈자로 평가받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윤채운 충남역사박물관  
박물관운영부 연구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의견수렴 이벤트

참여기간 22.9.19.(월) ~ 10.14.(금) 당첨자 발표 22.11.4.(금)

충남자치경찰과 관련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이벤트 참여방법**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접속 후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산 00 고등학교 앞 오토바이 단속 강화해 주세요~ 오토바이 인도주행, 굉음 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전동 킥보드 헬멧 착용 단속해주세요~

천안 00역거리 골목 야간 순찰활동 강화 부탁드립니다. 주취자들의 고성방가가 심해 불편합니다.

**이벤트 상품** 우수 사례 (10명) : 10만원 상당 상품권 / 랜덤 추첨 (50명) : 1만원 상당 상품권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

충남도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관으로서의 다짐을 굳건히 했다. 충남소방본부는 9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방공무원들은 선서문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도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배치된 소방서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4주간의 현지 적응훈련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된다.

사진/맹철영  
/충남소방본부 041-635-5561

# 로봇청소기로 해양쓰레기 수거해요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 개최  
카약·서핑동호회 회원 등 참여

충남도는 9월 17일 태안 천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태안해양문화진흥원과 함께 ‘제3회 충청남도 해양 플라스틱 사냥대회’를 개최했다.

해양 플라스틱 사냥대회는 해양 레저나 생태탐방과 같은 해양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을 접목한 ‘플로깅(plogging)’ 방식의 신개념 수중·연안 정화 활동이다.

대회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관찰하는 환경 교육을 가진 뒤, 카약 동호회

회원들이 비닐 등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특히 도가 한국생산기술원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로봇청소기를 투입,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대회에는 도와 군 관계자, 태안해양문화진흥원이 초청한 국내 거주 외국인인과 지역 학생, 카약·서핑 동호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간 바닷물과 햇빛에 노출된 해양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여장 환경을 훼손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 참가자들이 해양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로도 해양쓰레기를 즐기면서 치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정책과 041-635-2764

## 대한민국 명장에 충남 명장 김보현씨

“기술 개발, 후진 양성 힘쓸 것”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2022년 대한민국 명장’에 충청남도 제2기 명장 김보현(사진) 씨가 이름을 올렸다.

충청남도 제1기 명장 이광택 씨에 이어 제2기 명장까지 충청남도 명장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현대제철 소속 김보현 기장은 1986년 금속재료 분야에 입문한 이후 컨



베이어용 비상정지장치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열풍로 열풍본관연결부와 보수방법 등 20건의 기술 개선 노력을 펼쳐왔다.

김보현 기장은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한발 한발 정진해 영예를 얻게 됐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후진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2

## 수목원서 스탬프 찍고 기념주화 받으세요

수목원·정원 스탬프 투어 운영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금강수목원은 가을철을 맞아 ‘수목원·정원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스탬프 투어 참여 수목원·정원은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금강수목원과 안면도수목원, 청양 고온식물원, 홍성 그림같은수목원, 보령 무궁화수목원, 당진 삼선산수목원 등 총 18곳이다. 스탬프 투어는 관람객이 수목

원·정원을 찾아 스탬프를 찍으면, 3개를 채울 때마다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수목원·정원 가운데 3개 수목원·정원을 방문한 경우, 세 번째 방문한 곳에서 교육 키트를 받는다.

이후 3개의 스탬프를 더 찍을 때마다 미션나무나 광릉요강꽃 등 다양한 우리꽃으로 만든 기념주화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36



## 29일까지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0월 17일부터 시작하는 7기 귀어학교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예비 귀어인의 성공 정착을 돕기 위해 수산업 기초 지식과 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귀어인이나 귀어 희망자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귀어학교에서 합숙하며 어업·양식업·창업 등에 필요

한 이론 교육을 2주 동안 받고, 체류형 현장 체험 실습을 2주 동안 받게 된다.

또한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 1주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도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나 도 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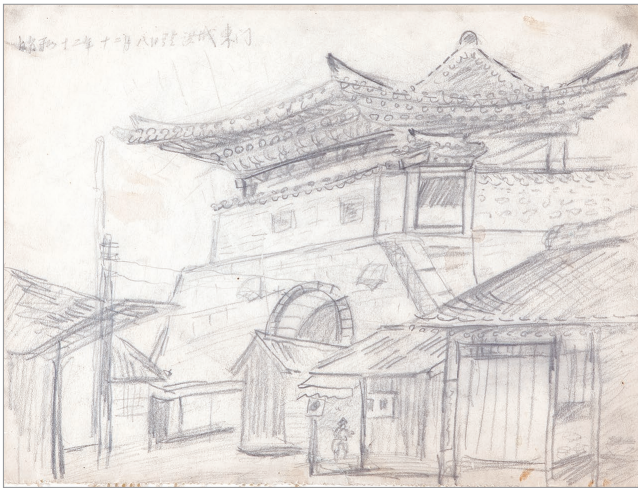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64

## 전통을 넘어 더 넓은 예술세계로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여정

대나무 숲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스승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확립한 이응노는 1935년경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전통의 한계를 벗어나려 노력한다. 당시 1930년대 조선에서는 일본화 모방이 유행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양사상과 즉흥성을 강조한 동양주의 미술론, 조선의 자연을 담은 향토예술론과 동양정신주의를 강조한 조선미술론 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이응노에게 더 넓은 안목으로 새로운 시대예술을 성찰케 하였고, 당시 유행하던 일본 미술대

학이 아닌 사실 강습소(가와바타 미술학교, 혼고회화연구소)나 개인화실[마츠바야시 게이게츠의 덴코 화숙]에서 서양화와 일본화를 배웠다. 특히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사생’을 충실하게 연습한다. 서양식 풍경화의 원근법과 선으로 대상을 그리고 면을 색으로 채우는 방식은 동양화화의 붓선이 곧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과 상하좌우로 끝없이 펼쳐지는 부감법과 파노라마적 시선이 특징인 산수화와는 사뭇 달랐다. 이 시기, 동양과 서양의 많은 화가들은 동서양의 화풍을 융합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이응노 또한 서양의 스케치풍에 동양화의 필묵 맛이 결합한 신남화 양식의 풍경화를 창작하며 전통목축화가에서 현대예술가로 변모



고암 이응노, 홍성동문, 종이에 연필, 28.5x37.2cm, 1937

하게 된다.

/황찬연 이응노의집 학예연구사

### ▶ 작품설명

원편은 이응노가 그린 홍성 조양문의



고암 이응노, 한강풍경-밤섬, 한지에 채색, 39.2x52.5cm, 연도미상

옛 모습이 남아 있는 연필 스케치로 사실적 표현과 기하학적 원근법이 가미된 그림이다.

오른편 작품은 <한강 밤섬 풍경>으로 좌우로 넓게 펼쳐진 한강의 파노라마

풍경에 앞쪽 오두막과 중앙의 밤섬, 원경의 산들이 전후로 깊숙하게 멀어지는 형식으로 동서양의 산수-풍경이 결합한 작품이다.





-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우리는 백제 무령왕 가족” [공주]충남 공주시 주최로 지난 18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백제 무령왕·왕비·공주·왕자 선발대회’에서 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무령왕 최승인(49) 씨, 왕자 김수민(12) 군, 공주 성아라(12) 양, 왕비 조유진(42) 씨.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68회 백제문화제 기간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연합뉴스 제공

## 청양 ‘라이브커머스’ 가능성 확인

고추구기자축제 실적 374만원

생방송 접속자수 2398명 집계

[청양]청양군청년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영환·이하 연합회)가 라이브 커머스 ‘에이플러스 오늘’ 채널을 이용한 3회차 생방송을 통해 첫 판매실적 374만원을 올렸다.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및 연대 협력을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실시간 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매체다.

연합회는 칠갑마루 소품몰 입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판로개척, 할인프로모션 등 청양군 최초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와 판매 교육을 지원받았다.

또 2022년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기간



고추밭 생기 장면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지역활성화재단 와유 회의실에 모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역량강화교육(6회)을 이수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생방송에는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방송팀으로 디자인 공작소협동조합, 청아름협동조합, 청춘온협동조합, 레이디버드협동조합이 힘을 보탰다.

판매 제품은 ▲청양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송연순 작두콩차, 수비참쌀가루, 숨 구증구둑 구기자차, 천마분말, 칠갑산신령 선식 밤이조아 ▲코리아특산품협동조합 석류조아, 표고버섯뽕, 더덕이조아 ▲청양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답아유) 쌀로미, 구기자분말, 구기자 증포차(구증구포), 고지베리 커피 ▲칠갑산어머니한과영농조합법인 한과, 육포 ▲꽃피는 산골 협동조합 압화 현장 체험(부채+엽서, LED탁상램프, 컵반침) 등이 있다.

생방송 접속자수는 시험방송을 포함한 4회 동안 총 2398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단체들은 라이브커머스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를 경험했으며 앞으로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를 위해 개별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양군 제공

##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최대 32만 원 지원

지역기업 면접 준비자 대상 추진

18세~39세 구직활동 적극 독려

[공주]공주시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구직자 면접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

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사진 촬영, 면접 스타일링, 면접 정장 대여, 면접(교통)비 지원 등 취업 준비 시 꼭 필요한 활동 4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사진 촬영 2만 원(연 1회), 면접 스타일링 3만 원(연 최대 3회), 면접 정장 대여 4만 원(연 최

대 3회), 교통비 지원 3만 원(연 최대 3회) 등 1인당 최대 32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원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 청년으로 공주시 관내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및 공주시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이다.

/공주시 제공

## 금산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확대’

해충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

금산천변데크길 등 16곳 설치

[금산]금산군은 유해 해충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은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 공원 등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장소는



해충기피제 분사 모습.

다수 인원이 방문하는 ▲군북면 산꽃벚꽃마을오토캠핑장 ▲제원면 인삼골 오토캠핑장, 금강생태학습관 ▲금성면 금성산 둘레길, 비호산, 이슬공원 ▲금

산읍 금산천변데크길, 진악산 ▲남이면 남이휴양림, 개삼터공원, 12폭포, 보석사 등에 설치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에는 모기, 진드기 등 해충이 기피하는 성분이 첨가된 약제가 들어있어 등산로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 옷 또는 노출피부(팔, 다리 등)에 10~20cm정도 거리를 두고 분사하면 된다.

단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연령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금산군 제공

##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11월까지 3개월 반값

총 12억원 감면 효과

[예산]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은 군 전체 수용가(1만5771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2억

원(상수도 10억원, 하수도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상·하수도 감면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제공

## 딸기 우량 원묘 보급…명품화 지원

130 농가에 원묘 10만 주 보급

농가 편의성 품종 갱신 효율 ↑



[홍성]홍성군은 지난 13일 명품 딸기의 품질 유지를 위해 130여 농가에 딸기 원묘10만 주를 보급했다.

보급용 딸기 묘는 2021년도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생산된 조직배양묘를 관내 전문 육묘장에서 증식한 바이러스가 없는 원묘이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이상 기후와 인근 시군 사업정책 등으로 평년 대비 좋은 딸기 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이번 보급이 농가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부터는 가을에만 배부하던 기존 방식에서 딸기 모주 정식기에 맞춘 이듬해 봄에도(2월) 배부할 계획이다.

우량 원묘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유전적으로 노후화된 기존 딸기 모주(어미묘)의 갱신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딸기 모주 정식기(2월)에 맞추어 제공하면 보급받은 농가의 편의성 및 현장 품종 갱신의 효율이 향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급사업에 관계자인 홍성군 딸기연구회 ‘홍철의’ 회장은 “홍성 명품 딸기가 전국에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을 자랑하는 이유는 홍성 딸기 농가라면 누구나 공인된 우량 원묘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속해서 협력해 보급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해당 보급사업의 중요성과 향후 취지를 밝혔다.

/홍성군 제공

## 특별재난지역, 민방위 교육 면제

자발적인 복구 활동 참여 독려

8월 22일 기준 미이수자 대상

[부여]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교육 면제 확정을 받아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 면제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 선포일 이전 전입한 민방위 대원, 선포일 이후 전출한 민방위 대원 중 2022년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다.

단, 특별재난 선포일 이전 전출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부여군 제공

## 휴식과 치유 공간 제공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오는 11월 준공 예정

[청양]충남 청양군은 20일 청양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청양원’을 착공했다.

‘청양원’은 청양의 푸른 산과 파사로운 별을 새롭게 해석해 담아내는 도시 숲 공간이다.

산림청 공모사업 유치로 확보한 5

억원을 투입해 문예회관 방문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잔디마당, 바람원, 자연원, 그늘원 등으로 이용자 수요 맞춤형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특히 잔디마당에는 쿨링포그를 설치해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면서 청량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양군 제공



# ‘빵빵데이 천안’, 빵지순례단 모집

오는 16일까지 100팀 신청 접수  
다음달 9일~10일 이틀 간 개최  
빵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천안]**천안시와 대한제국협회 천안시 지부가 올해도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 우수한 빵을 널리 알리고자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2022 빵빵데이 천안!’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빵빵데이 축제는 홍보를 위한 빵지순례단 운영부터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비롯해 빵마켓, 베이커리 경연대회, 빵빵데이 콘서트, 제품할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000~6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었던 천안 빵빵데이만의 차별화된 이벤트 ‘빵지순례단’은 그동안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00여 명(100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빵지순례단은 9일 전야제 행사 시 소정의 빵지순례권을 지급 받아 행사 기간 중 참여 제과 업소를 방문하고 축제와 빵지순례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팀장을 포함한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4명 이하로 구성된 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빵의 도시 천안’ 공식 누리집(pangpangday.co.kr)에서 하면 된다.

다. 선정된 참가자는 협회에서 오는 2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빵빵데이 축제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지역 농·축산물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하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대학 등 꾸준하게 연계 범위를 확대해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축제도 많은 시민이 동네 곳곳에 숨겨진 빵집을 여행하며 맛있는 빵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므로 2022 빵빵데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 무창포 대하·전어 ‘가을의 맛’ 즐겨요

3년 만에 현장축제 개최  
맨손고기잡기 체험 등

**[보령]**보령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2022 대하·전어 축제’를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창포 어촌계(대표 이종길)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으며, 맨손고기잡기 체험과 각종 공연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개막 첫날인 17일 오후 7시 30분에는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광장상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보령시 제공



2022 대하·전어 축제 포스터

행사 기간 중 매주 일요일과 국경일인 10월 3일에는 맨손고기잡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24일과 10월 1일에는 어린이 노래자랑이 열린다.

/보령시 제공



팜파스그라스 만발한 수목원

**[태안]**지난 17일 충남 태안군 남면 청산수목원을 찾은 탐방객이 만발한 팜파스그라스를 감상하고 있다. 사람 키보다 훨씬 길게 자라는 팜파스그라스는 포아족과(벼과) 식물로, 활모양으로 늘어진 잎들이 한데 모여 둥근 형태로 자라다 꽃대가 올라와 가을부터 겨울까지 꽃을 피운다.

/연합뉴스제공

# 신창학성, 축성 시기 백제시대로 밝혀져

조선시대까지 4단계 유적 발견

**[아산]**아산시는 지난 6일 그동안 추정 범주에서 논의되던 신창학성의 백제시대 축성이 확실하게 규명됐다고 밝혔다. 신창학성 북벽·동벽의 회절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에 나선 아산시와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 상층 발굴을 시작으로 올해 하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4단계에 걸

친 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는 백제시대의 수혈유구를 조성한 단계로 저장용 목적의 수혈 9기가 확인됐다. 유물은 삼족토기, 개배, 단경호,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기와 등이 출토됐는데, 시기는 웅진기에서 사비기로 편년 된다.

2단계는 신창학성 성벽의 축조단계로 경사면을 정리한 후 중대형의 할석을 4~6단 정도 안팎으로 성돌을 쌓는 협축식으로 축성했다.

3단계는 건물지와 기반석렬 등을 조성한 시기다.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삭토와 성도를 통해 대지를 만든 후 조성됐다. 주름무늬병 등이 출토돼 나말여초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4단계는 건물지가 폐기된 이후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기둥구멍 등이 운용된 단계다. 총 32기의 유구가 확인됐으며, 조선시대 기와편 등이 확인됐다.

/아산시 제공

# ‘길 친구와 동행하는 걷기 여행’

당일, 1박 2일 코스 운영

아름다운 서해랑 길 탐방

**[태안]**충남 태안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지역의 아름다운 서해랑 길을 탐방하는 ‘길 친구와 동행하는 걷기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해랑 길은 우리나라 외곽의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4천500km의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안에 조성된 산책길로, 태안군에는 11개 코스 189km가 포

함돼 있다.

이번 걷기 여행은 당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로 운영된다.

당일 코스로 가면 코스별 출발지에 집결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등 하루 2회 출발한다.

서해랑 길 65코스(남면 몽산포→청포대, 왕복 8.9km), 68코스(소원면 어은돌→파도리 해식동굴, 왕복 5.8km), 70코스(원북면 신두사구 일원, 왕복 8.6km), 75코스(원북면 갈두천→시우치 저수지, 왕복 8.4km) 중 매회 지정 1개 코스를 탐방한다.

/태안군 제공

1박 2일 코스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태안 터미널에서 집결해 버스로 함께 이동한다. 서해랑 길 65코스와 70코스를 이틀에 걸쳐 탐방한다.

이원면 새섬리조트에서 숙박과 바비큐, 공연 등도 즐길 수 있으며, 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길 전문가가 함께한다.

사전 신청을 한 회당 20~4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당일 코스 무료, 1박 2일 코스는 17만(1인)~25만원(2인)이다.

# 파리지앵 안 부럽다!

장항 시크릿라이프 여행

**[서천]**자연친화적 힐링여행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서천군이 생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장항송림삼림욕장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낭만과 힐링이 있는 일상을 선물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위켄드장항’은 오는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장항송림삼림욕장 일대에서 오후 3시부터 일몰시간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자연여행과 일상여행을 키워드로 ▲자연쉼터(서천하늘 해변쉼터, 장항솔숲 숲 쉼터) ▲물시간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자연쉼터(서천하늘 해변쉼터, 장항솔숲 숲 쉼터) ▲물시간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노을 감상과 자연힐링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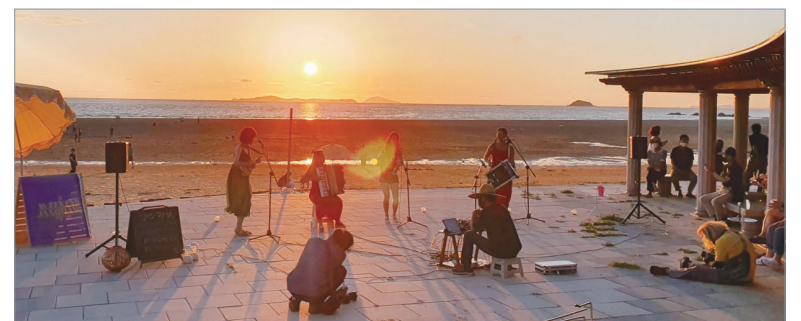
/서천군 제공

자연쉼터는 파라솔과 선베드, 티피텐트 무료 대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포토존,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여 관광지이용을 확대토록 준비됐다.

플레이 장항은 전국의 버스커가 참여해 장항을 여행하고 공연 버스킹을 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일바지를 입고 추는 웰컴 플래시몹 댄스는 단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자연에서 요가, 댄스, 해양쓰레기줍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포레스트라이프는 캠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미니폴장, 물총과 함께 플레이 장항(해변시네마, 버스킹, 주민 플래시몹댄스) ▲포레스트라이프(힐링&그린액티비티) 프로그램은 진행한다.



장항송림삼림욕장 일대에서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다.



# 누가 지역 예술가인가?

## 내포칼럼



정연희  
국립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립 10주년  
예술인 인권과 직업적 권리 보호  
문화 인프라 서울·수도권 편중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 한계 있어  
지역민 스스로 해결 주체되어  
역량키우는 내생적 접근 필요

올해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국가가 예술인의 인권과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노력해 온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그 혜택과 지원이 제대로 주어지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근본적 문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문화예술 생태계 또한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문화 분권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스스로 해결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등 지역 내생적(endogeneous)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예술가들을 만나보면 문화예술 생태계 변방에서의 여러 고충과 소외를 토로하기도 하지만, 지역으로 이주해 온 예술가들은 그 지역 예술가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지역에는 크고 작은 여러 예술가 협회들이 있는데 지방정부 지원금의 전달 통로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기득권층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아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교류하지 못하는 예술가 커뮤니티로부터 ‘보이는 것 너머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앞에 표상하는 진정한 예술적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예술가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특정 지역을 작업과 삶의 무대로 삼을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가로 통칭하는 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인간의 의식을 확대하는 사람들이다.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물아의 상태에서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업에 영혼 즉 칸트가 말하는 심미적 이념(aesthetic ideas)을 불어 넣음으로써 우리들의 시야를 광대하게 열어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어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생각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예술가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열려 있으며 이로부터 들려오는 것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헌신적으로 몰입하고 무의식, 잠재의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깨달음으로써 통찰이나 계시를 얻게 된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부딪치는 문제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 고통과 인내의 회임(懷妊) 기간을 가진다. May(1975, 1999)에 의하면 이처럼 작업에 몰입하는 동안 예술가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식욕도 느끼지 못하며, 주변의 것들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소변생성 같은 생리적 현상들도 자제된다고 한다. 이렇게 탄생한 위대한 예술은 현재를 혁신하고 미래를 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줄 예술가의 헌신적 몰입과 그에 기인한 통찰과 계기가 결여되었을 때, 예술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예술가와 애호가(enthusiast)의 근본적 차이는 재능이나 시간의 차이라기보다 끝없는 헌신적 몰입에 의한 예술적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잘못된 예술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는 예술, 외관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알맹이가 빠진 예술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예술적 노출증(예술적 허영심)이라 할 수 있다고 May는 지적한다. 예술가는 그들이 지닌 예술정신과 열정의 깊이만큼 추앙받는다. 지역의 예술가들 스스로 중앙의 변방이라는 자기 한계와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예술적 실천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주영 그리고 ‘임정의 어머니’ 정정화

### 생생현장리포트



김동근  
무한정보 기자

예산군은 ‘매한 윤봉길 의사’의 고향이다.

꼭 90년 전인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공원 전승기념식(천장절)에서 일제의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져 침략의 주범인 시라카와 대장 등을 처단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일독립운동가.

올해는 제77주년 광복절이자, 그가 같은 해 12월 19일 가나자와 교외 육군형무소 공병작업장에서 십자가형틀에 묶인 채 25살 나이로 총살을 당한 ‘순국 90주기’다.

예산군청 앞 비석군. ‘백성을 자애롭게 여기고, 청렴하고, 고결하여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설명과 함께 정낙용·주영 부자의 영세불망비와 청덕선정비가 서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는 불과 200여미터 거리다.

이들은 누구일까? 정낙용은 일제가 1910년 10월 남작 작위, 1911년 1월 은사공채 2만5000원,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하사한 인물이다.

장남인 정주영은 작위를 승계해 1915년 9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연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특별회원으로 기부했다.

11월에는 ‘다이쇼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물사전에 이름을 올린 고관대작이다.

그리고 정주영의 딸 ‘수당 정정화’. 1900년 8월 아버지가 대술 시산리로 낙향해 우리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항일독립운동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 김구 선생은 그를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칭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건너가 1930년까지 국내를 오가며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1934년 한국국민당 입당, 1940년 한국독립당 창당요원·한국혁명여성동맹 조직, 1941년 3·1유치원 교사, 1943년 대한애국부인회 참여... 정부는 1982년 대통령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다시 군청 앞 비석군. 군행정은 조선총독부에 부역한 정낙용·주영 부자의 영세불망비와 청덕선정비 앞에 기존 안 내 문을 철거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들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당 정정화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독고선생님과 해홍이의 유럽 여행

### 소중에 문학관의 책들(8)



소중애 동화작가

루브르 박물관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날.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 빗방울도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 당황하여 둘러보니, 아, 이럴 수가? 거리에 나만 홀로 서 있었다. 모두들 어디로 갔는지 거짓말 같게도 짝 사라졌다. 빗물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미 프랑스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나는 마음을 굳혔다.

‘루브르만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비와 돌풍은 금방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거리의 악사들이 나타나 연주를 했다. 연주하는 헨델의 ‘울게 하소서’에 가슴이 아렸다. 또 다시 터지려는 울음을 꺾으며 루브르만 보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루브르! 그 웅장함, 책에서 보았던 낮익은 그림과 조각들. 내가 모나리자 앞에 서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

거리에서 파는, 바케트 가운데를 드릴로 파고 안에 소시지와 머스타드를 넣은 빵은 얼마나 맛있던지...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서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곳곳을 누비며 다녔다. 넓은 장미 밭에 닿으니 짙은 장미향 때문에 기절할 뻔했고 끝이 안보이는 옥수수 밭을 지날 때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일반적 진리에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프랑스를 용서했다. 당진 신평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다. 입학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출석 부를 때만 작은 소리로 ‘예.’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 가면 넓은 장미 밭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말 없는 그 아이가 물었다.

“오스칼도 보았어요?” 오스칼은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영화에 나오는 마리앙트와네트 호위무사로, 만화속 캐릭터였다. “오스칼도 보았어요?”

아이의 질문을 받는 순간 교실 벽이 찢어 갈라지면서 베르사유의 장미밭이 보이고 칼을 찬 금발의 멋진 호위무사 오스칼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말 없던 그 아이는 그 후 수다쟁이가 되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 현재를 영위하라!

###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 원효깨달음길 8-1코스

오랜만에 원효깨달음길 8-1코스에 있는 안국사지를 방문했습니다. 안국사지를 감싸고 있는 은봉산 봉우리를 한 바퀴 돌아 보며 다가오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안국사지에 돌아와 석불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석불입상 중 본존불은 네모진 돌로 된 보관을 쓰고 있어 안국미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며 미륵불을 조성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미륵불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그 누군가처럼 미륵불에게 기도하려다가 불교 화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석가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이다.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란

화두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는 ‘나’입니다. 이 화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전 단순히 ‘시간’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과거 석가, 미래 미륵, 현재 나로. 과거나 미래는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과거란 존재할 수 없고, 기대하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와 같이 과거나 미래의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석가와 미래의 미륵도 지금 나의 관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에 바라보이는 미륵불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돌덩어리 조각을 숭배한다는 것이겠죠.

불교의 핵심은 치열한 노력으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즉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니 돌덩어리 조각

에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삶이 고단하여 미륵불을 울부짖으며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극정정도가 이루어지면, 인간 세계에 다시 내려온다고 믿어졌던 부처였으니까요.

머리의 이성보다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염려인 가족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를 영위합니다. 이를 통해 석가와 미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삶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닐까요. 아마 돌덩어리인 미륵불은 오만하고 거만한 저에게 절을 할 수 없을 테지만, 마음속에선 맞절하고 있을 겁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서 말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 “음악요? 놀면서 배웠어요” 악기로 소통하는 아이들

당진꿈나래학교 해늘합주단

글로벌 K-POP대회 은상 수상

**[당진]** 조금 느린 사람들이 모여서 빠른 성공을 이뤄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난 안 될 거라고 좌절한다. 하지만 당진꿈나래학교 해늘합주단은 도전하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긴 결과, 큰 상을 가슴에 품었다.

당진꿈나래학교(교장 김홍석) 해늘합주단은 지난 3일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 주최한 5통공감 예술페스타 글로벌 K-POP대회 밴드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해늘합주단의 공식명칭은 IT 결합형 타악기 앙상블 합주단으로 ‘2022 장애 학생 문화예술 활동 공모사업’으로 운영된다. 장애 학생의 재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세한대학교 정건영 교수의 지도도 받고 있다.

올해 3년째로 드럼, 심벌, 붐고 등 타악기와 디지털 미디어 타악기 앱을 이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공연 연습

으로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여가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왔다.

이번 해늘합주단의 수상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해늘합주단은 지난 2020년 전국 제13회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작년 2021년에는 은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이미 입증받았다.

해늘합주단의 단원 A양은 “서로 다른 악기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노래도 부르면서 선후배간의 친목을 쌓는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며 “우리들을 가르쳐주신 송동석 선생님 정건영 교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행복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처음에는 마냥 떨리기만 했는데 관객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상을 받았을 때는 엄청 좋았고, 애들도 다 같이 뛰면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5통공감 예술페스타 글로벌 K-POP대회의 1차 예선은 비디오 녹화로 진행됐고, 본선 무대에서는 연주와 댄스



글로벌 K-POP 대회 밴드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해늘합주단.

까지 기획한 공연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본지가 받은 동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은 긴장되어 보이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를 즐기고 있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야외무대 갈라쇼에 초청되어 관객의 큰 박수와 응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

회가 됐다.

해늘합주단 정건영 지도교수(세한대 실용음악학과 교수)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논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정말 신나게 놀고 나왔다”며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잘 하지 않는 친

구가 크고 빠르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생각에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해늘합주단 담당 송동석 교사는 “해늘합주단은 꿈나래 학생들이 서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놀이 속에서 하모니가 만들어져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그 무엇보다 교육에도 좋다”며 “아이들이 지체,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지저분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깨버리고 싶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홀로서기에는 세상이 많이 낯가롭다”고 걱정했다.

당진꿈나래학교 김홍석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성장 속에서 발전되는 선순환적이며, 긍정적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신문 제공

## 러시아어 통역관, 외국인 민원 ‘해결사’ 자리매김

신창면사무소 압둘 보시 씨,

외국인 서비스 위해 시범 채용

**[아산]** 아산시 신창면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 올해 7월 말 기준 신창면 총인구 2만7199명 중 외국인 거주자는 79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이른다.

충남 208개 읍면동 중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신창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외국인 중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출신이다. 이들은 영어가 서툴러 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신창면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압둘 보시(사진) 씨(한국 이름 이민수)를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채용했다.

압둘 보시 씨는 러시아어 통역 자격증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최고등급을 받았고, 아산경찰서 외사계 등 공공기관에서 통역한 경력이 있는 등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



압둘 보시 씨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2017년 9월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한국과의 인연은 ‘K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서 시작했다. 압둘 보시 씨의 말이다.

압둘 보시 씨는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똑같이 일과를 보낸다. 이렇게 먼 소재지 관공서에서 ‘폴타임’으로 외국인 통역관을 두는 건 전국에서 신창면이 유일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신창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230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와 건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 98%에 해당

하는 226명이 ‘만족’했다고 답했다.

압둘 보시 씨는 ‘작은 도움’이라고 겸손해 했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처지에선 결코 작지 않다. 한 예로 8월 10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3251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792건은 압둘 보시 씨가 소화해 냈다.

그러다보니 알음알음 소문이 퍼져 신창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신창면 측은 전했다.

압둘 보시 씨는 한국에 애정이 많다. 그래서 오래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다. 압둘 보시 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무엇보다 전 한국에서 살고 싶고, 여건이 되면 귀화할 생각입니다. 현재 로선 여의치 않은데, 노력 많이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무엇보다 한국 법을 잘 알아서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신문

## 예산 출신 ‘분례기’ 작가 방영웅 타계

대술 시산리 분례술길 조성

“드라마·연극 등예산의 자랑”

**[예산]**고 방영웅(사진) 작가는 1942년 예산읍 예산리(현 예산성결교회 자리)에서 태어나 1956년 성경해 1961년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67년 등단했다. 작품은 1960년대 예산지역을 배경으로 쓴 대표작 ‘분례기(1968)’를 비롯해 ‘달(1971)’, ‘살아가는 이야기(1974)’, ‘첫눈(1976)’, ‘박힌돌 뿔힌돌(1980)’ 등이 있다.

고향 후배들인 ‘극단예촌’은 2009년 ‘연극 분례기’를 무대에 올려 ‘제27회 충남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예산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고인은 “문학은 고

독한 작업이에요. 재능만 믿고 문학하는 것은 아주 못마땅해요. 갈수록 문학이 상업화되고 있고, 심지어 독자들 비위를 맞추는 작가들까지 있지요. 그래도 세상은 또 바뀝니다. 그것가지고는 안돼요”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밝혔다.

대술면은 2010년 ‘분례기’의 주무대인 시산리 일원에 ‘분례술길’을 만들었다. 주인공 분례가 용팔과 나무하러 다니던 길이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 ‘논산행복대학’이 있어 살맛난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내가 태어난 곳은 너무 가난한 강촌이어서 학교갈 생각은 엄두도 못냈지 시집이라고 와보니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였어.”

할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아들 넷을 잘 키워 장가보내고 이제는 쉬엄쉬엄 살아가도 될까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외롭고 힘들었지. 싱거웠다. 해야되나, 매일 매일이 무료했어.

그런데, 논산행복대학에 등록을 하고 생전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면서 동네 친구들과 가방메고 ‘논산행복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행복을 찾게 되었지, 이때가 내 삶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어,

이제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다 쓸 줄 알아 병원에 가서도 불편함이 없지, 도시에 가서도 간판을 썩 다 읽을 줄 알아, 난 글 쓰는게 재미있고, 좋아, 신기하고, 꿈만 같아. 그뿐아내 글이 작품이 되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썼더니 나보고 작가래...내가 이런 세상을 만날줄 어떻게 알았겠어, 호호호

최점수 어르신은 살아온 여정과 함께 앞으로 세상에 맛있는 양념이 되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시화작품이 최우수 대상으로 선정되어 충남도지사상까지 받게 되어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최점수 어르신  
논산시 벌곡면

## 태안사랑상품권 확 바뀐다

지류형 5만원 권 첫 발행

신두사구·격렬비열도 디자인

**[태안]**태안사랑상품권이 2002년 첫 발행을 시작한 이래 두번째로 디자인이 바뀐다. 또한, 5만원권은 이번엔 처음으로 선보인다.

‘태안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도입한 대안화폐다.

군은 태안군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지류형 상품권 5만 원 권을 신규 발행하고 기존 상품권의 도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



태안사랑상품권

선안을 도입, 9월부터 새로운 상품권 유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기존 1만 원 권이 다량으로 소지하기 어렵고 이미 5만 원 권 화폐가 통용되고 있는데다 기존 상품권의 도안이 다소 단조롭고 군 홍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지류형 상품권에는 꽃을 도형화한 기존의 도안 대신 태안을 상징하는 격렬비열도(1만 원 권)와 신두리해안사구(5만 원 권)가 새겨지며, 앞면에는 보안요소가 있어 부정 사용을 막는다.

9월 1차로 75만 매의 신규 지류형 상품권이 발행되고 올해 말까지 110만 매의 지류형 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기존 디자인의 상품권도 발행 일로부터 5년 간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매월 50만 원까지로,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가능하다.

/태안신문 제공





청년 대장장이 박준하 씨



박 대표의 자신의 대장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박준하 씨가 만든 부엌칼

## 인생을 닮은 대장간...달구고 두드리면서 단단해진다

29세 청년 대장장이 박준하 씨  
예산에 대장간 ‘마더스틸’ 창업  
예술성 더한 수제도구 경쟁력  
플리마켓·축제 등 지역활동도

**[예산]** ‘청년’이 예산에서 대장장이로 등장했다. 지난 7월 ‘마더스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박준하(29)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그의 대장간은 계속 깊숙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간신히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마을길을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지역의 ‘꿈지락협동조합’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스물아홉 청년의 고향은 경북 영주

다. 초·중·고 학창시절은 대구에서 보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대학진학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학벌’에 적응한 이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이력이다. 하지만 이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자퇴 후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 “돈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기농을 배우러 영덕에 갔을 때 농기구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대장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이다.

농사를 짓든, 밭을 매든, 혹은 땀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든, 농촌지역 어디서나 필요한 농기구를 눈여겨봤다.

그렇다고 곧바로 시작할 순 없었다. 준비가 필요했다. 군복무후 2017년부터 부여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서 2년 동안 철물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밟았다. 이때 기술을 연마하면서 머릿속

을 지배했던 생각은 ‘생태적 대장장이’였다.

강력한 프레스나 각종 기계장비가 대장장이의 수고를 덜어주고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건 기계의 조력을 최소화하고 오직 자신의 손과 몸만으로 필요한 일체의 ‘도구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생태’로 이해했다.

“앞으로 어디서 살까 고민하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던 중 안동 지인이 예산 ‘꿈지락협동조합’ 이승석 대표를 소개해줬다. 마침 대장간을 운영하겠다고 건물을 지어냈고, 장비도 마련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즉시 이 공간을 보러 왔는데, 공간도 넓고 채워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마음에 들었다”며 우리지역에 정착하게 된 사연을 들려줬다.

4년 전 이곳에서 거의 맨 몸으로 대장간을 시작했다. 어차피 ‘생태적 자

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니, 쇠를 달굴 수 있는 화덕과 망치·집게 정도면 충분했고, 기계나 장비없이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었다.

그는 이제 어엿한 ‘마더스틸’이라는 사업체 대표가 됐다. ‘청년 대장장이’라는 자신을 향한 세간의 관심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 5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용접사로, 사회적기업 청년활동가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기계를 샀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실험도 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이 올해 7월이다. 두 달 밖에 안됐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쪼대, 향꽃이, 접시, 부엌칼, 호미를 상품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리마켓, 축제현장에서 10분 안에 팬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축제 시즌이 시작될 때 현장에서 저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에 돈을 벌고 싶긴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값싼 제품과는 질이 다른 수제품이란 점을 알려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어떤 장인이 되고 싶은지 묻자 “경계가 모호한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장인과 작가 양쪽 특성을 다 지닌 사람이고 싶다”며 “그동안 터득한 기술로 예술성이 가미된 상품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장간은 피약별 내리되는 한 여름 무더운 바깥공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풀무질로 인한 화덕열기로 가득찬 곳이다.

이곳에서 거칠줄 모르는 창작열정으로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박 대표의 손에서 탄생할 작품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사뭇 궁금하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 나태주 시인, 신간 시집 출간

일상 속 행복 찾는 통찰

**[공주]** 나태주(사진) 시인이 신작 시집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를 출간했다.

코로나 블루로 한동안 우울한 세상이 우리를 지배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기가 쉽지 않았다. 그럴 때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준 친구가 나태주 시인의 시다.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달려가려 하지 말고 숨 쉬고, 밥 먹는 일상에 감사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



릴 줄 알라는 나태주 시인.

나태주 시인은 독자에게 가장 평범한 언어로 가장 간절한 절규를 보낸다. 그리고 시를 통해 자연, 자신, 가족, 사람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 자신을 잘 다독이라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일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권한다.

세상살이에 지친 자신을 위해 꼭 읽어봐야 할 이 시집은 열림원에서 펴냈다. 가격은 1만 4000원.

/특급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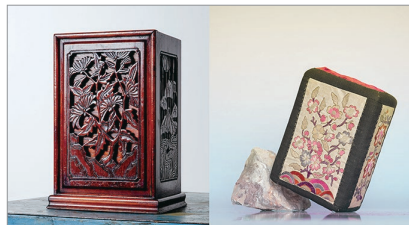
## ‘규방의 식물들’ 특별전 개최

다양한 전통 ‘식물 문양’ 돋보여

**[아산]** (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관장 김은경)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후원으로 지난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관 4전시실에서 ‘규방의 식물들’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3년째 진행 중인 ‘공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되었던 ‘동물과 문양’ 특별전에 이어 유물에 새겨진 ‘식물 문양’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규방에서 사용한 물건, 그리고 그 유물 속 식물 문양을 조성연 작가의 시



식물 문양의 규방 공예품.

선으로 재해석한 사진과 함께 선보인다.

옛 규방 여인들은 손바느질로 옷과 물건을 만들고, 문양을 새기는 수련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유를 수용하며 예술로 승화시켰다. 대표적으로 바늘집에는 꽃과 나비, 연화문 등 다양한 미적 효과를 통해 화려하게 장식되어있다. /온양신문

이은하 옷 판화 풍경 이은하展 개최

**[공주]** 옷칠공예가이면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이은하 작가의 옷 판화 풍경 이은하展이 이은갤러리에서 열린다.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69-21에서 이은갤러리 옷 공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나전을 이용해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단아함이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인다.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천년을 넘는 생명력을 지닌 옷칠작품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를 감탄케 한다.

이은하 작가는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쉼을 찾고, 평소 접할 수 없는 귀한 옷 향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급뉴스 제공



사서들의 서재



〈다정한 물리학/해리 클리프/다산 사이언스(다산박스)/2022〉

## 무(無)에서 사과파이를 만드는 방법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고대부터 수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탐구해왔던 질문이다. 이 의문에 답하려는 학문을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과학은 철학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 방향성이 다를 뿐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는 자연철학자로 불렸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우주의 근

본 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과학이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사과파이에서 시작하는 이 여정은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CERN에서 대형강입자충돌기LHC(이걸 장치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 장치의 둘레는 무려 27km이다.)를 이용해 힉스 보손을 발견하는 2013년에 다다랐다가, 그 너머로 향한다.

왜 하필이면 사과파이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과학계의 고전이자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 다큐멘터리인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이 사과파이에서 우주의 기원을 추적해 나갔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파이를 만들려면 먼저 우주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책의 원래 제목도 〈How to make an Applepie from scratch(무에서 사과파이를 만드는 법)〉이고 부록에는 진짜로 사과파이를 만드는 법도 적어두었다.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물리학 책이 이론물리학적 관점에서 물리학을 설명해온 측면이 강한 데 반해, 이 책은 실험물리학적 관점으로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과학자들이 세계의 근원을 어디까지 밝혀내고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쓰고 있어 혹시 다른 물리학 책을 본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물리학 책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작가가 워낙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 부담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김희영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및 긴급현안 질문

“농촌현실에 맞는 재해 보상기준 마련해야”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설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들이 침수되지만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은 물론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전과와 침수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X공주역 남부권 성장거점 돼야”



박기영 의원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 2)은 15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위치선정 실패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 부족,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 부족,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동향 등으로 공주역의 입지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주변 지역 국가산업단지 유치 ▲KTX 세종역 신설발표에 따른 공주시의 추진 불가 입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충북도와 공동 대응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박미옥 의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혜택을 위해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충남에서 개발하는 것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공주에 이미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공주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지역을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불산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육성정책 충남이 선도해야”



안장현 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 5)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확보를 통한 충남 연계산업의 중흥과 좋은 일자리 확보’를 주제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경우 반도체 관련 245개의 기업이 포진돼 있고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다”며 “중앙정부 역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식 지원으로 반도체 후공정 선도 기술 확보와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자립 지원 및 3400억 원 규모의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산 테크노밸리 보육·교육 여건 개선”



이용국 의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 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테크노밸리 단지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서산 테크노밸리단지에서는 서산시 출생아의 약 25%가 태어나고 있으나 성연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 1곳 치과 2곳으로 아이들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병원은 한 곳도 없어 아이들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은 “성연초등학교와 성연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과 의료시설 유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의병기념관, 홍성에 건립해야”



이종화 의원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 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병기념관을 홍성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병 역사의 상징성이 짙은 홍성이 의병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며 “의병기념관 건립 부지 확정만은 모두가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병기념관 건립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의무다. 예산군의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과의 연계사업은 의병이 아닌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진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이철수 의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 1)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진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충남 시·군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위 지역이 1.39개, 도내 평균은 1.1개인 반면 당진지역은 0.96개로 15개 시·군 중 1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원정 응급과 진료료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4개 시·군에만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는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 현실을 강조한 뒤 충남 북부권의 거점지역인 당진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조기 준공 촉구



윤희신 의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 1)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과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지방도 603호선 상습정체 구간 확·포장 공사가 2025년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태안화력 1·2호기를 대체한 LNG발전소는 태안이 아닌 경북 구미와 전남 여수에 지어질 예정으로, 근로자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일자리정책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AI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충남이 앞장”



조철기 의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 4)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AI(인공지능)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은 하천수위와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39개의 수문과 11개의 펌프장, 재해예경보와 같은 모든 재해예방시설을 적기에 구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능형 하천시스템의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지를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주진하 의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 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주 의원은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요, 안보산업으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웃돌지 못하고 농가소득은 500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하는데 농업인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고 역설했다.

또 “금액으로 산정하기 힘든 식량 안보, 농촌경관 보호·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교권 추락…예방대책 마련해야”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 2)은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도내 교권침해 사례를 들며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등의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책을 정비해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지민규 의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 6)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충남도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충남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이미 민간에서는 주택, 식품, 가전 등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행정과 정책은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을 예로 들며 “서울시는 1인 가구 정책 기반을 마련, 시행 중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부서 신설 통한 정책 시행 등 변화하는 사회에 충남도의 발 빠른 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노인 건강증진 위한 생활체육 정책 논의

방한일 의원 주최 의정토론회 열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의정토론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 의원이 좌장을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노태현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홍식 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팀장, 김혜옥 충청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

로 나섰다.

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만 6600명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면서 “고령화 시대, 양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기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며 활발한 논의를 주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용현 연구위원은 ‘도내 어르신 체육시설 실태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어르신 신체 및 건강 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체육시설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방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출된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전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20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오는 10월 7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를 주제로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다움아트홀의 열세 번째 전시전인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7점과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13점의 우수작품들을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행사를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시’로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품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삶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배워 읽고 쓰는 것 이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전시가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어르신들의 창작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추경예산안 심의

제340회 임시회 개최

14일 간 84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5일부터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 8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1월에 있을 제341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2대 의회의 첫 예산안도 처리한다.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8488억원(8.71%)과 1조 7223억원(36.3%)이 각각 증액된 도와 교육청의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종 실·국의 출연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 회기 방한일 의원(예산1)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5분발언 인원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5분발언 신청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다.

또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행 모습.

## 제340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발의

### “학교 유희부지 학교숲 체계적 조성”



구형서 의원

충남도 내 학교 유희부지에 학교숲과 텃밭의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학교의 교육행정이나 업무가 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협의하며 이뤄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원화돼 추진 중인 도청과 교육청의 유사사업을 묶어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김기서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 갱신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범명을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도민 신기술 제안제도 지원’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이 대표발의한 각종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신기술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도민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위한 안내 및 협조 노력 ▲제출된 제안의 심사 기준 ▲신기술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도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이 새로운 기술의 발굴·보급과 신제품 개발 촉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신영호 의원

충남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승계 농어업인 자격요건 및 선발 ▲실태조사 ▲기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어촌 정착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견 청취로 산단 정책 효율성 높인다”

안장현 의원(아산5)

충남도 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현 의원(아산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의견 청취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더욱 효율적인 산업단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투명성 확보



오인환 의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문화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등 문화회관 운영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문화복지가 증진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정적 해상교통 지원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태안2)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정광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시경관 해치는 옥외광고 막는다

조철기 의원(아산4)

충남도의회가 도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조철기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추가 신설해 광고물 등에 의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분할발주 독려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창용 의원

충남도의회는 최창용 의원(당진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홍성현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현장별 해체 여건에 맞는 적합한 장비투입과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제보기간 : 2022. 9. 1. ~ 10. 31.

※ 2022. 11. 1 이후 접수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반영

제보내용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사항 등

### 제보방법

-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 우편 (방문)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 문의전화/ FAX 041-635-5083/ 041-635-5283



# 제68회 The 68th Baekje Cultural Festival 백제문화제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 —

2022.10.1<sup>SAT</sup>~10.10<sup>MON</sup>

개막식 부여 | 폐막식 공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주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주관

 (재)백제문화재단

[www.baekje.org](http://www.baekje.org)